

## 숙련된 간호사 지속근무 위해 정부 나서야

### 간호협회,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강력 촉구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가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 주최로 9월 6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이 토론회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수급정책은 숙련된 간호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기관과 간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수가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적정기준을 설정해 적용해야 한다"면서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



하고,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및 보상체계 마련, 공중보건 간호사제도 도입, 공중보건장학 제도 활성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역할 확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은 "올해 안에 성과보상 질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잘 운영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질 지표가 우수한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순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인력수급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

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야간근무 수당을 한시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지원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득시키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과 토론회자로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의료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밭상이며, 간호서비스 질 개선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고, 환자(소비자) 중심 트렌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최윤경 간호사, 수영장에서 시민 생명 구해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했다.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했다.

최윤경 간호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경험 덕분에 응급상황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간호사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환자에게 달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결혼이주여성 한국생활안내서 '웰컴북' 발간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예정자가 입국 전에 알아두면 좋은 필수 정보를 담은 휴대용 한국생활안내서 '웰컴북(Welcom Book)'을 제작해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작된 웰컴북은 13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태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 리오스어, 네덜란드어)로 확대 제작됐다. 이미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정보의 유용성을 높였다.

웰컴북에는 결혼이민자가 입국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와 출입국 관련 정보, 주요 해외공관과 주한대사관 등 주요 도움기관 연락처 등이 담겼다. 이 범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최수정 기자 sjchoi@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급하다

권미혁 국회의원 토론회 … 간협 등 보건의료단체 참여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하다' 토론회를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 제정·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권미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부족하고 보건의료부문 내 갈



등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정태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이야기 하다'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토론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발전 계획에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간호사 수급정책이 아닌 적정한 의료이용량과 병상 수 등 의료자원관리계획을 전제로 계획돼야 하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oop@

## 의약품 임상시험 남녀 성별 균형 맞춰야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

앞으로 의약품 임상시험을 할 때 남녀의 성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의약품의 승인·사용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권고했다.

이들 부처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9월 말까지 법률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보면 우선, 의약품 임상시험에 남녀 균형 참여 및 성별 분석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임상시험에 의약품 사용 시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 시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를 대상으로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정 성별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기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도 여성 대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수집·평가해 온라인 의약도서관의 전문 가용 콘텐츠 등에 제공도록 했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젠더의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 실시하도록 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보수 교육 및 연수교육에 남녀 특성을 고려한 젠더의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의료 전공과정에도 젠더의학 관련 교육내용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Nurselife**  
make yourself comfortable  
www.Nurselife.or.kr  
1566-3137

### 2017년 연중 지급 혜택

- 2017년 회비납부자 20,000 회원복지포인트 지급
- 등록회원 RNshop 총 구매액의 1% 적립포인트 지급

### 8월 지급 혜택

- [6.21~8.15] 간호현장 온라인 지침서 「간호실무」 오픈 이벤트 : 320명, 2,738,000원 상당 제공
- [8.1~8.31] RNcard 사용 회원 대상 네스라이프포인트 지급 : 162명, 1,745,000원 상당 제공
- [7.28~8.8] 영화 「청년경찰」 주연배우 무대인사 및 무료관람 : 60명, 540,000원
- [7.21~8.16] RNcard day 영화 「다크타워」 초대 이벤트 : 100명, 900,000원

### 9월 지급 예정 혜택

- [8.25~9.15] RNcard day 천원의 행복, 인기 모바일쿠폰 1,000원에 판매
- [8.23~9.5] 신규 간호화 009 시리즈 네이밍 이벤트
- [9.6~10.3] 신규 간호화 009 시리즈 구매후기 이벤트

간호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종로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 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취업에 대한 고민 끝~!



간호 1004 모으기

## 이력서 등록이벤트



이력서 등록 및 상담 시 10,000원 모바일 쿠폰제공

재취업 및 취업·이직을 희망하는 모든 간호사

'17.8.21 ~ ※ 1,004명 등록 시 조기마감

대표 1522-1755 또는 공식홈페이지 (<http://www.rnjob.or.kr>) 참조

### 권역안내

서울·강원 02-2268-2631~3

대구·경북 053-756-8487

광주·전북·전남·제주 062-222-5025

부산·울산·경남 051-442-3824

대전·충북·충남 042-825-0749

인천 032-441-2926

경기 031-302-9504

\*상담시간: 평일 오전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10,000원  
이력서 등록, 상담 시 모바일 쿠폰 증정!!